新年隨想

나눔은 '인간의 길'

정찬주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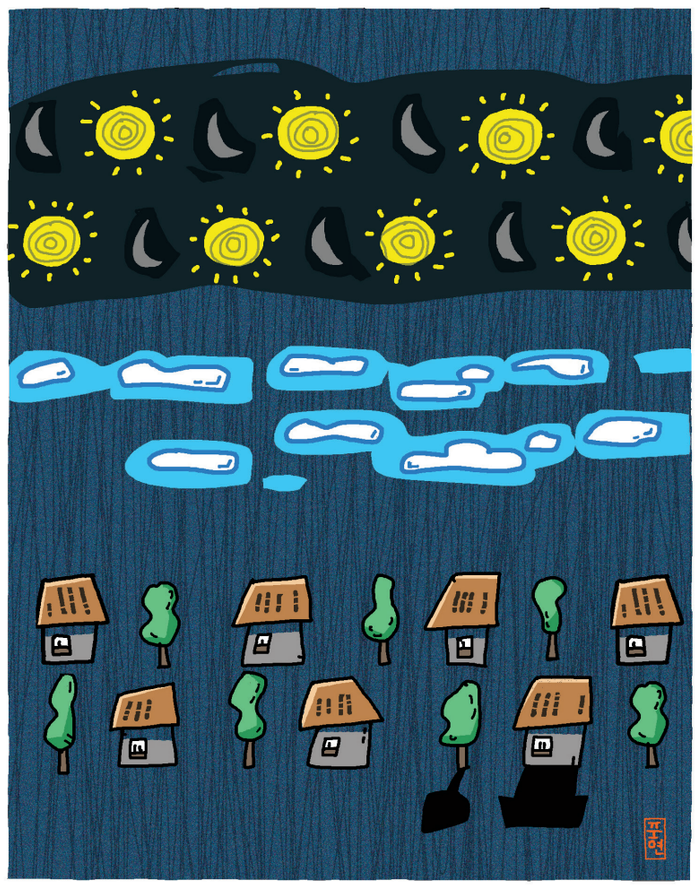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구랍 만난 인도 巨富 스리니바산 회장
요익중생 프로젝트로 사회적 나눔 실천
자비 구체화한 나눔, 본래인간 되는 길
경자년 내 첫 화두는 '베풀고 나누는 삶'

창호가 새벽빛으로 푸르게 물결치고 있다. 아래 절에서 수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내 산방은 절 위 계곡에 있으므로 조그만 소리도 크게 공명이 되어 올라온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이 해맞이를 하러 산길을 나선 모양이다. 나는 해돋이를 보러 굳이 산정으로 가지 않는다. 내 산방 건너편 산자락에 오르면 계당산 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당산은 내가 은거하듯 살고 있는 화순군과 보성군을 경계 짓는 꽤 높은 산이다. 무엇보다도 내게는 인생을 사유하게 하는 산이다. 계당산 허공의 빗방울은 화순군에서 불어가는 바람을 만나면 보성강으로 갔다가 섬진강이 된다. 반대로 그 빗방울이 보성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만나면 화순의 지석강을 흐르다가 영산강에 섞인다. 어느 바람과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빗방울의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길이 크건 작건 달라진다고 본다.

며칠 전, 저녁식사 겸 술자리에 초대를 받아 읍내에 나갔다. 한 달 전부터 내 책의 애독자인 지인이 간곡하게 부탁해서 참석한 자리였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나로서는 어색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식사하기 전 모두가 와인술잔을 든 채 갑자기 나더러 '덕담 한 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적잖이 당황했다. 할 수 없이 나는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

"세월은 가는 것인지 오는 것인지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세월이 간다고 여기면 아쉬운 마음이 들 것이고, 세월이 온다고 느끼면 가슴이 설레게 될 것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여러분 모두가 가슴 설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덕담을 했는데 모두가 "만나서 반갑다, 영광이다"는 식이어서 특별하게 기억이 남아 있지는 않다. 다만, 나름대로 독서경험을 말할 때는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한 사람은 중학교 1학년 때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또 한 사람은 대학 2학년 때 법정 스님의 〈서 있는 사람들〉을 읽었다고 말했다.

나이가 가장 많은 70대 중반의 한 분은 내가 5.18광주항쟁 이야기를 G일간지에 연재하고 있다고 하자, 자신은 그 무렵 광주에 있으면서 직접 목격했으니 증언해줄 수 있다고 제의했다.

만남이 중요하고 사람이 소중한 것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듯하다. 중학교 2학년 때 톨스토이의 〈인생독본〉을 읽었는데 다 잊다시피 했지만 한 구절만은 5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말뚝처럼 내 가슴에 남아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만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이 순간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는 일이다.'

지난 12월 5일 부산 안국선원에서 만난 인도 첸나이 TVS그룹 베뉴 스리니바산 회장과의 만남도 오래도록 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인도에서 세 번째 부자라고 하니 지금까지 내가 만난 기업가 중에서 최고의 거부(巨富)였다. 스리니바산 회장이 불교와 인연을 맺은 까닭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그의 어머니 스승은 달라이라마와 함께 티베트를 넘어온 삼동린포체였다. 브라만으로서 힌두 신자인 스리니바산 역시 삼동린포체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면서 힌두 사두와 삼동린포체나 수불 스님이 울타리가 되어 삿된 기운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고백했다.

몇 년 전 수불 스님을 범어사에서 처음 만났을 때 마음속에 햇살 같은 평화로운 빛이 가득했다고 회상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뒤 수불 스님이 범어사 선방을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3년 뒤에야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마음부처(心佛)를 찾으라는 것인 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스리니바산은 카르마(Karma, 業)를 많이 이야기했다. 수불 스님을 만난 것도 카르마요, 기업이 흥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도 카르마라고 했다. 이 부분에서 나는 아침저녁으로 무념무주(無念無住)의 명상을 한다는 그가 수행자로 여겨졌다.

특히 기업경영 목적이 기업의 사회화에 있다고 하므로 부럽기조차 했다. 불가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의 회사는 모든 이웃을 이롭게 하는 '요익중생(饒益衆生)의 사회적 기업' 이었다.

그는 자신이 벌이고 있는 요익중생 프로젝트를 전생에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현재 인도의 130개 힌두사원을 보수 수리했고, 제일 큰 두 개의 사원은 세계문화유산이 됐단다. 가난한 인도인 380만 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생계를 해결해 주고 있는데 목표는 500만 명이라고 한다. 그들 중에는 무슬림, 기독교 신자, 힌디, 불교신자가 있지만 자신은 종교에 대한 편견은 없다고 말했다. 부처님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인간은 본래 평등한 존재가 아니냐고 내게 되물었다.

그를 만나고 아내와 함께 내 산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눔을 깊이 생각했다. 자비와 사랑을 구체화한 베풂과 나눔이 본래인간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깨달음이 들었다. 상대를 존중하는 베풂과 나눔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자기 구원이라는 자각이 사무쳤다.

개인적으로는 참사람이 되는 자기 구원의 길이고, 사회적으로는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21세기 혹은 미래의 삶에 대한 최상의 대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었다. 그런데 물질을 많이 가진 자만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닐 터였다. 가난한 사람도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베풀고 나눔이 가능할 것 같았다. 친절한 말씨, 다정한 눈매, 정다운 얼굴, 배려하는 태도 등도 열린 마음의 나눔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작가인 나는 내 산방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주로 내 저서를 선물하고 있다. 내가 사는 산중마을의 농사꾼 이장에게 고생한다며 내 소설책을 주었더니 중학생 시절 학급문고의 이광수와 황순원의 소설을 다 읽었다며 너무 좋아했다. 그러고 보니 베풀고 나누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몫이 있을 것 같다.

어느 새 창호에 날빛이 투과하고 있다. 이제 나도 해맞이를 하러 아내와 함께 건너편 산자락으로 나갈 시간이다. 경자년 나의 첫 화두는 베풀고 나누는 삶이다. 늦은 자각이지만 남은 여생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

社說

새로운 변화 움트는 한 해 되길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에서는 올해 총 25개 교구본사 중 8개 본사의 주지 임기가 만료된다. 특히 8개 본사주지 모두 4월까지 임기 만료된다는 점에서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새로 선출된 본사 주지들이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불교 황금어장인 군포교에서도 변화가 이뤄졌다. 새해부터는 군포교 현장에서 5계 대신 10선계가 설해진다. 군 실정에서 5계 수지 장병의 현실적 난관을 보완하고, 계율이 일상의 생활에서도 구체적 실천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장 1월 1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계사로, 삼귀의 10선계 첫 수계법회가 봉행된다.

주요 불교단체들도 창립 행사를 준비 중이다. 대한불교청년회는 6월 20일 창립 100주년을 맞고 전국 공무원 불자들의 결집체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도 10월 7일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조계종 포교사단도 3월 12일 창단 20주년이 된다. 2020년 불교학계는 대형 국제학술행사가 잇달아 열리는 호재를 맞았다. 서울대가 주최하는 세계불교학회(IABS) 학술대회로 오는 8월 16~21일 열린다. 동국대는 국제불교인식논리학회 제6회 학술대회를 8월 24~28일 부산 신라스테이에서 개최한다. 두 대회 모두 높아진 한국불교학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자년은 쥐의 해로, 쥐는 풍요와 희망과 기회를 의미한다. 한국불교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불자와 한국사회에 희망과 기회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성도'는 이웃과 함께하는 것

불교 수행은 번뇌를 떨쳐내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이런 굴레에 벗어나 성도한 날을 우리는 성도절이라 한다.

양력 1월 2일, 음력 12월 8일은 불자들이 부처님이 닦은 수행을 본받아 용맹정진하는 성도절이다. 성도절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님이 깨닫기 위해 행한, 그리고 깨달은 다음 행한 실천과 이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다. 성도절을 단순히 기도로 일관하는 기복적 행태에서는 이러한 성도절의 본 뜻을 깨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이번 삶 동안 마땅히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직접 평생을 인도 전역에서 중생교화에 임했다. 성도란 바로 깨달음의 증득이며 대중의 삶 속에서 이들의 고통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절을 맞아 바로 우리 이웃을 향한 자비심을 발현해야 한다. 이웃을 향한 보살도를 실천할 때 성도의 참다운 의미가 구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성도절에는 이러한 전법과 보살행의 모습은 적다. 각종 공양과 기도로 점철되어 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적 세계관에서 보면 나는 내가 아니요, 둘도 아닌 불이(不二)다. 오늘과 같이 계급간의 갈등과 대립, 세대 간 또는 계층 간의 반목을 극복하는 해결책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 속에 있다.

이러한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 세상에 실천해 나갈 때 진정한 공덕이 뭇 중생들에게도 모두 회향되고 그 가피가 자신에게도 함께할 것이다. 다가오는 성도절,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용맹정진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복지 현장, 전법포교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진해나감이 어떨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경자년 마음이 넉넉해지는 자비도량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명상 배워요!



대광사 명상상담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명상상담대학으로, 대승의 보살정신을 기초하여 기본, 심화, 전문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자기소외 등을 명상과 심리상담 치유와 올바른 자아성찰을 통해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과정	강의시간	교과목		자격	전형요강	수강료	자격증
空 기본 (1년)	[화] [야간]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불교개론(연기, 공) • 명상과 상담의 이론과 실제	1)자격심사 없음 (연령, 학력, 종교불문) 2)명상과 심리 상담을 배우고자 하는 자	1차: 서류전형 • 입학원서 • 사진2매 (반명함) 2차: 면접 대광사 종무실 접수	학기당 17만원	명상상담지도자 2급
		2학기	• 명상개론 • 사념처관법				
假 심화 (1년)	[수] [주간] 1교시 13:00 ~ 14:20 2교시 14:40 ~ 16:00 [야간]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상담심리 • 대승 반야사상	1)명상과 상담 1학년을 수료한 자 2)1학년이상의 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을 취득한 자			
		2학기	• 면접상담 • 유식과 명상				
中 전문 (1년)	[목] [야간]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천태소지관 • 상담응용	1)명상과 상담 2학년을 수료한 자 2)정규 명상과상담 2년 과정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1급
		2학기	• 자비명상				
요가	[화] 오전 10:30 ~ 11:50	• 테라피 재활 요가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접수	매월 3만원	-

▶수강료 : 1학기당 17만원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30 대광사 ▶Tel. 031) 715 - 3000, Fax 031) 715 - 3409
▶교 통 : 분당선, 신분당선 / 정자역, 미금역 3번출구 마을버스 1번, 2번,19번 / 오리역 7번출구 마을버스 19번

분당 대광사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TEL) (031) 715-3000 / (FAX) (031) 715-3409